## 조영동 초대전 **본질로 가는 길**



Cho Youngdong

# Cho Youngdong

조영동 초대전



2024, 11, 6, wed - 12, 15, Sun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전관 Forest Gallery, Chungbuk Culture Hall





### 2024 충북문화관 기획전 조영동 초대전 - 본질로 가는 길

2024. 11. 6 .(수) ~ 12. 15. (일)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전관

#### 전시 개요

발행인: (재)충북문화재단 김영환(이사장) 주최·주관: 충청북도·충북문화재단 기획·진행: 충북문화관 학예사 손명희 전시지원: 안수현, 곽진영, 이신아

작품사진 : 임장활 작품운송 : 익스아트 영문번역 : 스튜디오 알마 다큐영상 : KBS 한국방송공사

**표지디자인** : 팡파르 **도록제작** : 디디어

### 도움을 주신 분들

조윤신(유가족대표), KBS한국방송공사, 안태연, 손선희(유준상 유족), 김달진미술자료연구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

### 발행처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김갑수) (재)충북문화재단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 충북문화예술인회관 4층 http://www.cbfc.or.kr

#### 충북문화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22번길 67

Tel. 043-223-4100 Fax. 043-223-4101

### 일러두기

본 도록 도판설명은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및 기법, 크기 순입니다. 작품크기는 세로 × 가로 순입니다.

### **Cho Youngdong Invitational Exhibition**

#### Road to the Essence

Wed. Nov. 6, 2024 - Sun. Dec. 15, 2024 Forest Gallery, Chungbuk Culture Hall

#### **Exhibition Overview**

Publisher: Kim Young Hwan, Chairman of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Hosted & Organized by: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Chungbuk Culture Hall

Planning & Producing: Son Myoung Hee (Curator, Chungbuk Culture Hall)

Exhibition Support: Ahn Soo Hyun, Kwak Jin Young, Lee Shin Ah

Photo: Lim Jang Hwal

Artwork Transportation : iksArt English Translation : Studio ALMA

**Documentary Video**: KBS Korean Broadcasting System

Cover Design : Fanfare
Catalog Production : Ddear

### Special Thanks to

Cho Yoon Shin (Family of Cho Youngdong),
KBS Korean Broadcasting System,
Ahn Tae Yeon, Son Seon Hee (Family of Yoo Joon Sang),
Kimdaljin museum, Arts Council Korea, ARKO Arts Archive

### Published by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4th fl. Chungbuk Cultural Artist Center, 7, Hyanggun-ro, 94beon-gil,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Website: http://www.cbfc.or.kr/

Chungbuk Culture Hall

67, Daeseong-ro 122beon-gil, Sangdang-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 +82-(0)43-223-4100 | Fax. +82-(0)43-223-4101

### nota bene

The caption for artworks in this catalog presents information in the following order: the title of the artwork, year of production, medium and technique, dimensions. The dimensions are ordered by 'height x width.'

### 목차 Contents

06	인사말 Greetings
08	축사 Congratulatory Remark
10	서문 Preface
18	전시평론 Critical Essay
28	도판 Works
98	아카이브 Archive
110	작가연보 Artist Biography
116	도판목록 List of Works

### 인사말

### 조영동 작가 초대展

### 본질로 가는 길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갑수**  온 산이 붉게 물들고 나뭇잎 사이로 비추는 햇살이 따사로운 가을 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2024년 충북문화관 하반기 기획전으로 충북 출신 작가'조영동(1933~2022) 초대전 - 본질로 가는 길 Road to the Essence'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조영동 작가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고 1957 년 중등교사를 시작으로 1998년 성신여대를 퇴직할 때까지 평생을 미술 교육에 헌신하며 힘썼던 진정한 교육자입니다. 또한 삶과 예술이 일치된 측은지심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치유하고 어루만지며 예술로 승화하는 수많은 종교화를 제작하였습니다.

작가는 1970~90년대 한국 현대미술사에 큰 흐름이었던 추상미술 세계에서 사물의 근원을 찾아 조형의 원리를 탐색하는 작업으로 끝까지 추상미술에 천착하였습니다. 평생 화폭 앞에 조형의 본질을 찾기 위해 가장 밑바닥의 근원을 탐색해가며 성찰한 끊임없는 창작에 대한 열의와 노력은 후학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근현대를 살아간 충북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업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충북미술의 현위상을 더 견고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를 위하여 먼 곳에서 흔쾌히 협조해 주신 가족과 전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2024. 11.

### Greetings

Cho Youngdong
Invitational Exhibition

### Road to the Essence

Kim Gap Soo CEO of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Autumn is in its maturity, and the warm sunlight shines through the red leaves that blaze all over the mountains.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has been continuously committed to discovering and presenting our region's outstanding cultural resources. As a special exhibition for the second half of 2024 at Chungbuk Culture Hall, we have organized *Road to the Essence, an invitational exhibition* of Chungbuk artist Cho Youngdong (1933~2022).

Born in Eumseong, Chungbuk, Cho Youngdong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Fine A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erved as a pioneering educator who devoted his life to art education, starting as a secondary school teacher in 1957 until he retired from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1998. On the other hand, with a heart of compassion(側隱之心) that united his life and art, he created numerous religious paintings empathizing with the torment of those who suffer, healing, comforting, and sublimating it into art.

Throughout his career, the artist immersed himself in the world of abstract art, which was a major trend in Korean contemporary art history from the 1970s to the 1990s, exploring the formative principles found at the origin of things. With tireless ardor and endeavor for creation, he investigated the most profound origin to attain the formative essence facing the canvas throughout his life, which remains an excellent role model for future generations. This exhibition is expected to become a meaningful opportunity to recall the achievements of a Chungbuk artist who lived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era and to further enhance the current status of Chungbuk art.

Lastly,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the artist's family for their willing collaboration as well as all those who did not spare their help in the successful preparation of this exhibition.

November 2024

### 조영동 초대

### '본질로 가는 길' 전시를 축하하며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가을의 햇살이 더없이 따사롭게 느껴지는 늦가을 정취만큼이나 도 내 전역에서 문화의 향기가 강하게 퍼지는 듯합니다. 도심 속 문화쉼터 충북문화관에서 충북 연고 작고(作故) 작가를 초대하는 '조영동 초대전' 을 개최하게 된 것을 164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충북은 민선 8기 도정 목표인 '문화의 바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 니다.

이번에 초대된 조영동 작가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고 평생 미술교육자로서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미술 사에 있어 추상미술의 독자적인 양식을 구축한 작가입니다. 또한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삶과 예술이 일치된 모습을 보이며 진정한 예술과 사랑, 사물의 근원을 찾고자 노력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지역의 소중한 예술가를 발굴하고 새롭게 조명하여, 고향에 초대해 주신 지역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전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전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가족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북은 지역의 근현대 예술인에 대한 조명 작업을 이어 나가고 지역 문화예술의 역사를 정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전시를 위해 기꺼이 협조해 주신 유관기관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충북문화관이 우리 지역 문화예술자원을 발굴하고 도민과 함께 문화를 향유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곳이지역예술인과 도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진정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조영동 초대'전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시회를 찾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 **Congratulatory Remark**

Celebrating the
Cho Youngdong
Invitational Exhibition

### Road to the Essence

Kim Young-hwan
Governor of Chungcheongbuk-do

The savor of late autumn enveloped in warm sunlight is even more enhanced by the scent of cultural events everywhere in our beautiful province of Chungbuk. The Chungbuk Culture Hall, a breathing spot where we can enjoy culture in the heart of the city, holds the *Cho Youngdong Invitational Exhibition* that spotlights the late artist from Chungbuk.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is event on behalf of the 1.64 million residents of Chungbuk province. Setting our slogan Sea of Culture of the 8th locally elected provincial office, Chungcheongbuk-do is continuously implementing cultural and artistic projects that are outstanding in diversity and quality for all citizens to appreciate.

The invited artist, *Cho Youngdong*, was born in Eumseong, Chungbuk province, and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Fine A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devoted his life to art education and was also an artist who established a unique style of abstract art in Korean contemporary art history. As a devout Catholic, he pursued attaining true art, love, and the origin of things, putting the unity between life and art into practice. My deepest gratitude goes to the local cultural and artistic community and the exhibition organizers for their commitment to rediscovering and shedding new light on such a remarkable local artist and holding an invitational exhibition in his hometown.

I also appreciate the active cooperation of the artist's family, without which this exhibition would never have been possible. Our province of Chungbuk promises to continue our initiative to highlight local modern and contemporary artists and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of the history of local culture and arts. I am grateful for the willing help of the officials of related organizations for this exhibition as well.

Chungbuk Culture Hall is highly anticipated to continuously assume the significant function of discovering our local cultural and artistic resources and providing local residents with enjoyment of those resources. In addition, I hope this place will evolve to be a spot where local artists and residents can meet and interact in harmony, a place of true cultural exchange.

I sincerely congratulate the *Cho Youngdong Invitational Exhibition* again, wishing all those who visit this exhibition and their families all the best of luck and wellness.

November 2024

### 조영동 초대전

### 본질로 가는 길

충북문화관 **손명희** 



조영동과 조윤신

1) 유족(대표 조윤신)은 2023년에 조영동 작가의 뜻에 따라 유작을 조영동 작가가 교수로 재직했던 성신여대에 200여 점이 넘는 작품을 기증하였고, 또 190여 점에 달하는 종교화 시리즈는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에 기증하여 2024년 3월 기증작품 전시회 <에체 호모> ('24.3.23 ~ 7.28)가 개최되었다.

2) 조윤신(성신여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이후 스페인 남편을 만나 현재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 지의 작품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딸 조윤신 블로그 인용 https://blog.naver.com/newspainpato 충북문화재단은 2013년부터 충북문화관에서 충북 작고 예술인에 대한 발굴 전시를 지속해 왔다. 충북미술 화단을 견인해온 선배 예술인들의 궤적들이 해마다 쌓이게 되면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보다 더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출생한 충북을 연고로 한 작가들은 한국 현대미술사를 관통하며 한국 동시대미술의 선구자적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러나 몇몇 드러난 작가를 제외하고는 탁월한 예술 세계를 일구었음에도 작업 활동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작가에 대한 평가 및 조명의 기회가 전무하였다. 늦은감이 있지만 이들 지역 연고 작가에 대한 철저한 미술사적 조명 작업과 위상 정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충북문화관은 2022년에 <이기원 초대전-추상, 끝나지 않은 길>전시를 통해 서정적, 기하학적 추상회화 작업으로 평생의 화업畵業을 일군 '이기원' 작가를 발굴하였다. 이번 전시 또한 이기원과 동시대 작가로서 1970~90년대 한국추상미술 화단에서 독자적인 추상미술 세계를 구축한 故 조영동(1933~2022) 작가를 조명하는 자리이다. 조영동 <본질로가는 길, Road to the Essence> 초대전은 한국 현대미술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상미술의 흐름에서 작가가 사물의 근원을 찾아 조형의 원리를 탐색하며 동시에 성스러운 에너지의 발현을 추구한 유작가 중에서 50여 점을 선정하였다. 조영동의 추상회화 양식은 조형적으로는다양한 양상으로 변모를 시도했지만, 가톨릭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보편의 정신적 맥을 잇는 줄기는 시종일관했다. 이러한 그의 마음속 깊은 주제는 '진정한 예술'과 '사랑', '철학'이 통용되는 유토피아에 대한 꿈이었다. '토양 soil, 인간에 humanity, 종교화 ecce homo'의 추상적 의미의주제는 그가 추구하는 추상적 양식을 더욱 고양시켰고 한평생 매진할 수 있었던 대 주제였다.

본 전시는 2022년 조영동 작가 타계 후 셋째 딸2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로 조영동의 정신적 빛을 선보이게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 <조영동의 화력畵歷>

조영동 작가는 1933년 충북 음성군 생극 시골 마을에서 7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워낙 잘해서 모두가 서울대 의대에 갈 것을 믿었지만3) 예술가가 꿈이었던 조영동은 부모님의 반대



돌아온 탕아, 배론성당

4) 유가족(조윤신)과의 대화('24.3.23.) '현혈을 하고 나올 때 머리가 핑 도는 순간 눈을 감고 한동안 앉아서 손에 쥐어 진 돈으로 물감을 사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희 열이 느껴지곤 했다'고 한다. 또한 아버지는 고모(여동생)들 에게도 항상 공부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배움에 대한 열정 과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 세계관이 남달랐다고 한다.

5) 1960년대 조영동은 대전지역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많은 예술 활동을 했기에 대전 미술사에서도 중요한 작가이다. 특히 대흥동성당에서 수요문화모임으로(오기선 신부와 더불어 이남규, 이지휘, 이종수, 최종태, 남용록 등) 예술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신문이나 주보지에 기고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갔다고 한다. 출처, 대전시립미술관, 《대전미술 아카이브》, 1960년대 대전미술의 활동들 '수요동인회' 송미경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사 글 인용

#### 6) 도판 이미지

7) 조영동은 2015년 한국교회 성미술 발전에 공로한 기여로 제19회 가톨릭미술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부회장을 오래 역임하면서 서울주교좌 명동대성당 '김범우 초상', 연풍성지 황석두 루카 성인화, 충북 제천 배론성지의 '돌아온 탕아' 및 2015년에는 절두산에서 돌아가신 순교자 김진구 안드레아 초상 등 많은 성화를 제작했다.

8) 사진 1(장욱진과의 사진). 조영동과 스승 장욱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이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아버지 조영동은 항상 스승의 택에 찾아가서 많은 대화를 통해 스 승의 도인 같은 화가의 정신적 세계를 만나 자신의 삶이 완 전히 바뀌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했다고 조윤신은 밝 하다

https://blog.naver.com/newspainpato

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미대에 입학했다. 가난한 시골 농부의 자식으로 공부는 물론 많은 동생도 돌봐야 하는 책임감으로 대학 생활은 늘 빠듯했다. 등록금은 물론 물감과 캔버스를 사야 했기 때문에 극장의 간판을 그러거나 벽화 작업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정말로 돈이 없을 때는 헌혈을하고 돈을 받아 물감을 사서 작업을 했다고 한다. 4) 1957년 대학 졸업 후 1958년까지 논산 대건고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10여 년간 대전지역5 중고등학교에서 재직했고 1965년 목포 교육대 교수를 거쳐 1967년부터 1984년까지 공주 교육대 교수를 역임했다. 1973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 휴스턴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내고 돌아와 1984년부터 1998년까지 성신여대에 재직하며 누구보다 교육 현장에서 미술교육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홍보와 교육을 실행한 진정한 교육자로서 사명감을 다했다. 그 밖에도 조영동은 1997년 제13회 재경 충북작가회 전시에 참여하면서부터 꾸준히 충북 작가로서의 활동을 이어갔다.

조영동의 중요한 이력 중 하나는 그가 10대 시절에 6.25 한국전쟁의 참혹함을 겪은 후 대학생이 된 후 자신을 신앙의 길로 이끈 친구(훗날사제6)가 됨)를 따라 독실한 가톨릭 신자가 된 후로 한국가톨릭 미술가협회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성화?)를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조영동의 작업이 일관되게 삶과 조형의 본질을 찾아 매진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절대적 신앙의 맥이 예술의 바탕이 되었음이다. 그는 예술은 치유이고희망이고 생명이고 인간 존재 이유임을 늘 강조하면서 나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반 추상화에 가까운 종교화를 많이 남겼다.

### <조영동의 예술 세계 - 근원을 찾아서>

조영동의 작품 세계는 1950~60년대 주로 대학 시절 스승이었던 장욱진 선생님으로부터 정신적인 영향을 밀접하게 받았다고 유가족은 회상한다.8) 이어서 1970~80년대에는 한국화단의 추상미술의 열풍 속에서 창작미협이나 서울현대미술제, 아시아현대미술전 등 단체 전시에 참여하였지만, 당시 유행했던 기하학적 추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점과 색' 시리즈로 마치 핵분열 과정과도 같은 점들이 묽게 번지는 유동적인 추상회화 계열의 작업을 했다. 이 시기에 그는 미국 휴스턴 대학의 초청 교수를 마치며 미국 생활에서 겪은 인종 차별과 이데올로기 갈등으로부터 크게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귀국 후, 미술교육이 이러한 사회적 갈등으로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교육과 화업에 더욱 전념하게 된다. 이때의 그림들은 원초적이고 분석적이며 근본적



예수님 사진, 개인소장

9) <조영동 작 空-想>, ≪공간 Space≫, 1986, 8.

229호. p. 79.

10) 조영동은 이때 나온 작업 과정을 거치른 대지를 상대로 묵묵히 땅을 갈고 있는 농부의 호미질에 비유하곤 했다.

11) 여기서 조영동은 심경의 한자를 적지 않아 적확한 뜻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필자는 작가가 마음속에 있는 근본, 심오한 길 또는 줄기의 느낌을 표현할 것이라 짐작하여 줄 기 경자로 표현했다. 글을 읽는 이의 뜻에 따라 다르게 해석 해도 좋을듯하다.

12) <조영동 작 空-想>, 《공간 Space》, 1986, 8. 229호, p. 78.

인 형태로 환원하려는 조형 원리의 기본 단위에 몰입하던 추상의 첫 번째 단계이다.

1980~90년대 작업을 살펴보면 조영동은 이전 작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표현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캔버스를 무수히 파내고, 긁어낸 나 이프의 제스처의 흔적들로 가득 채우며 본질을 추구하는 개념 추상 세계 <공-상 空-想> 시리즈에 천착했다. 가필(철점 凸點)과 감필(요점 凹點)9 의 긁어내는 기법으로 손이 내젓는 대로 많이 가중할수록 필치만이 남아 바탕색의 대비에 따라 위 색의 지각변화가 무한하게 달라지는 덜어내고 지우고 깎아 내면 되 고이는 관념적인 공간을 표출하였다.10)

1990년대부터 말년까지는 둘째 딸을 잃고 난 슬픔과 절망, 인간의한계 등을 극복하고자 종교적 신앙에 더욱 귀의하며 예술이 고통받는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일종의 추상 표현주의적 종교화 <토양·생성>, <토양·인성> 시리즈에 몰입했다. 회갑이 지나서도 대담하게 회화의 행위와 과정을 중시한 표현주의적 양식으로 전환은 그가 평생 갈구해온 내면으로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결과물로 나타났다. 무의식적이며 격렬한행위의 흔적과 물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재료의 사용에서 볼 수 있듯이순수 예술적 감성의 표출은 기존 관념적 질서의 공간에서 노닐다 오히려혼돈의 장, 공백으로 유영하는 듯 보인다. 화폭은 역동성과 즉흥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서체의 필법과도 같은 추상 이미지가 하나의 장(場)을 구성하며 이전의 관념적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

### <나가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영동 작가의 평생 과업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의 본질을 찾는 과정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래의 것,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순수조형에서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공간(Space)지의 글을 통해 조영동은 '어느 작가나 그 나름대로 지속되는 생각과 표현되어 나가는 경향의 줄거리가 평생을 통하여 이어지고, 여러차례 다른 조건에 의하여 변모된다고 해도 전체로 보면 흐르는 물줄기 같은 맥이 있게 마련이다'라고 의식의 흐름을 강조했다. 조영동은 이처럼 그만의 모양을 찾기 위해 본인 심성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바른 심경(心莖)11), 즉 회사후소(繪事後素)를 갈구하며 그림을 그려 나가는 평생의 작업으로부터 이 줄기를 되찾아 확인하는 길 12)이라고 했다. 이처럼 조영동의 작품 세계는 외부의 요인에 따라 변화



스승 장욱진과 조영동

하기보다는 부단히도 자기 내면을 파고들며 성찰한 결실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작가로서 누구보다 시대의 명리에 영합하지 않고 순수 예술 행위와 고귀한 정신으로 인간 생명의 근원과 본질에 다가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조영동의 예술 업적은 이제라도 재평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쉼 없는 창작에 대한 열의와 노력은 후학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충북 화단을 구성하는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 **Preface**

Cho Youngdong
Invitational Exhibition

### Road to the Essence

Son Myoung Hee Curator, Chungbuk Culture Hall Since 2013, the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has been organizing a series of exhibitions at the Chungbuk Culture Hall about the late artists from Chungbuk. As the trajectories of senior artists who have led the Chungbuk art scene have accumulated year by year, more in-depth research on each of them has been required. In particular, artists from Chungbuk, born in the 1920s and 1930s, have played the role of pioneers in Korean contemporary art, leaving their indelible mark in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art. However, with the exception of a few well-known artists, their work has not been adequately spotlighted, and there has been no opportunity to shed deserved light on them despite the excellence of their artistic creations. Although it is late, these artists from Chungbuk are to be brought to a thorough art historical illumination and re-establishment of the status of artists.

In 2022, the Chungbuk Culture Hall rediscovered the artist Lee Ki Won through the exhibition Lee Ki Won Invitational Exhibition - Abstract, Unfinished Road, who devoted his lifelong career to lyrical and geometric abstract paintings. Our current exhibition is also an occasion to highlight the late artist Cho Youngdong (1933-2022), a contemporary of Lee Ki Won, who established a unique abstract art world in the Korean abstract art scene from the 1970s to the 1990s. Cho Youngdong Invitational Exhibition *Road to the Essence* presents a selection of more than 50 works from the artist's oeuvre1), in which he searched for the origin of things, explored the formative principles, and pursued the manifestation of sacred energy within the flow of abstract art that accounts for a prevailing part of Korean contemporary art history. Even though Cho Youngdong's abstract painting has been transformed into various formative styles, the universal spiritual vein based on Catholic belief has remained unchanged throughout his oeuvre. The theme he cherished deep in his mind was the dream of a utopia where we pay attention to "true art," "love," and "philosophy." The abstract themes of "soil, humanity, and ecce homo" that further sublimated the abstract style he pursued were the ultimate themes to which he was able to devote his entire life.

This exhibition was made possible through the dedicated efforts and cooperation of the artist's third daughter<sup>2)</sup> after he passed away in 2022, and all these efforts bore fruit as a memorable occasion to shed light on the spiritual radiance of Cho Youngdong.

### Cho Young-dong's Painting History

Cho Young-dong was born in 1933 in the rural village of Saenggeuk,

<sup>1)</sup> In 2023, the bereaved family (represented by Cho Yoonshin) donated more than 200 works to Sungshin Women's University, where the artist served as a professor, following Cho Youngdong's wishes, and donated a series of 190 religious paintings to the Korean Catholic Martyrs' Museum, where the donated work exhibition Ecce Homo (March 23 - July 28, 2024) was held in March 2024.

<sup>2)</sup> Cho Yoonshin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German Literature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n studied in Germany, and currently lives in Spain with her Spanish husband while being devoted to promoting her father's work.

3) Referred to the content of the blog of Cho Yoonshin, the daughter of the artist https://blog.naver.com/newspainpato

4) According to my conversation with the bereaved family (Cho Yoonshin) (March 23, 2024), when Cho Youngdong felt dizzy after donating blood, he would sit for a while with his eyes closed and recharge himself by the sense of joy of being able to buy paints with the money in his hand. Moreover, Cho Youngdong had such an ardor for learning and an innovative view of women's social activities that he kept urging his younger sisters (Cho Yoonshin's aunts) always to study.

5) In the 1960s, Cho Youngdong worked as a teacher in Daejeon and, at the same time, engaged in many artistic activities, which made him an essential artist in Daejeon's art history. In particular, he was a member of the Wednesday Culture Meeting at Daeheung-dong Cathedral (along with Priest Oh Kisun, Ri Namkyu, Lee Jihui, Lee Jongsoo, Choi Jongtae, Nam Yongrok, and others). He expanded the realm of his activities by contributing his passion and love for art to newspapers and the church's Sunday bulletin. (Source: "Activities in Daejeon Art Scene in the 1960s: Wednesday Club," Text by Song Mikyung, curator of Daejeon Museum of Art, in Daejeon Art Archive,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6) Refer to the image of the artwork.

7) In 2015, Cho Youngdong received the Special Award at the 19th Catholic Art Award for hi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sacred art in the Korean Church. He served longtime as a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Catholic Artists Association, and he has produced many sacred paintings, including "Portrait of Kim Bumwoo" for Myeongdong Catholic Cathedral, Portrait of Hwang Seokdu Lukas for Yeonpung Holy Land, "Return of the Prodigal Son" for Baeron Holy Ground in Jecheon, Chungbuk, and Portrait of Andrea Kim Jingu, a martyr who died on Mount Jeoldusan, produced in 2015.

8) Photo 1 (Photo with Chang Ucch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o Youngdong and his professor, Chang Ucchin, was even closer than father and son. Cho Yoonshin recalls that her father, Cho Youngdong, often said his frequent visits to his professor's home, and their rich conversations allowed the artist to encounter the spiritual world of the ascetic painter Chang Ucchin and completely changed his life.

https://blog.naver.com/newspainpato

He excelled in his studies from an early age, and everyone believed he should go to medical school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up>3</sup>). However, Cho, who has been dreaming of becoming an artist, entered the College of Fine A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espite his parents' dissuasion. As a child of a poor farmer in a remote countryside, he also had to take care of his many younger siblings while doing his studies, so his college life was always tight. To pay for his paints and canvases as well as tuition fees, Cho had to earn money by painting signs for movie theaters or murals. When he was desperately penniless, he even donated blood to receive some money to buy paints for his painting<sup>4</sup>).

Eumseong-gun, Chungbuk province, as the second son of seven siblings.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in 1957, he started to work as a teacher, starting with the first post at Daegun High School in Nonsan until 1958, and then at secondary schools in Daejeon for 10 years<sup>5</sup>) before becoming a professor at Mokpo University of Education in 1965, and then a professor at Gongju University of Education from 1967 to 1984. He was a visit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Houston in the U.S. from 1973 to 1974. He returned to Sungshin Women's University from 1984 to 1998, where he earnestly fulfilled his vocation as a genuine educator by promoting and lecturing about the impact of art education on personality in the educational field. In addition, Cho Youngdong has also continuously revealed his identity as a Chungbuk artist ever since he participated in the 13th Exhibition of the Chungbuk Artist Association in Seoul in 1997.

One of the crucial aspects of Cho's trajectory is that he became a devout Catholic as a teenager after experiencing the horrors of the Korean War. As a university student, following a friend (who later became a priest6)) who led him to the path of faith, he became active in the Korean Catholic Artists Association and produced numerous sacred paintings7). A major factor that induced Cho's tireless pursuit of the essence of life and formativeness is that his art is rooted in the foundation of absolute faith. He has always emphasized that art is healing, hope, life, and the reason for human existence. He created numerous religious paintings, almost semi-abstract, full of empathy with the vulnerable and suffering.

### The Artistic World of Cho Youngdong - In Search of the Essence

The artist's family recalls that Cho Youngdong's art world was under the close spiritual influence of Chang Ucchin, who was hi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in the 1950s and 1960s<sup>8</sup>). In the 1970s and 1980s, when the craze of abstract art submerged the Korean painting scene, Cho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such as the Changiak Fine Arts Association, the Seoul Contemporary Art Festival, and the Asia Contemporary Art Exhibition. However, his works were instead differentiated from the geometric abstraction, the trend of the time, and more in line with fluid abstract paintings, with works such as the "Dotted Line" series, in which dots smear pale like a nuclear fission process. During this period, he completed his visiting professorship at the University of Houston in the United States, where he was deeply disappointed by the racism and ideological conflicts he experienced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after returning to Korea, this frustration nurtured his commitment to teaching and painting, encouraged by his belief that art education could even heal the human heart wounded by these social conflicts. His paintings of this period can be considered the first stage of abstraction, concentrated on the basic units of the formative principle of returning to primitive, analytical, and fundamental forms. If we examine his work from the 1980s and 1990s, we can notice that Cho Youngdong made a drastic departure from his previous stage, removing expressive elements from the canvas with countless traces of knife gestures of carving out and scraping away. Through such a process, he delved into the conceptual abstract world of the "Empty Thought 空 -想" series that pursued the essence.

He used the scraping technique combining adding stroke (convex point) and subtracting stroke (concave point)9). As more hand strokes are added, there are only traces of the strokes left. While the perceptual change of the top color varies infinitely according to the contrast of the background color, it reveals a conceptual space that eternally refills again after being removed, erased, and shaved off.<sup>10)</sup>

From the 1990s to the end of his life, he lost his second daughter, and in order to overcome the grief, despair, and human limitations, he became more and more involved in his religious faith. He immersed himself in the series "Soil-Genesis" and "Soil-Humanity," which are abstract expressionist religious paintings in which art can heal lives in agony. Even in his later years, after his 60th birthday, he dared to shift to an expressionist style that focused on the act and process of painting. It surfaced as the result of his lifelong search for an inner essence. As we can see in the traces of unconscious and fierce acts and the use of materials with a strong sense of physicality, the expression of pure artistic sensibility seems to rather drift into a chaotic field, a void, after playing in the space of the existing conceptual order. Abstract images, resembling the calligraphy of handwriting that emerges from dynamic

<sup>9) &</sup>quot;Empty Thought (空-想) by Cho Youngdong," in Space, No. 229, August 1986, p. 79.

<sup>10)</sup> Cho Youngdong often compared his working process of that time to a farmer's hoe work, plowing the rough, wild ground quietly.

and improvised acts, construct their field on the canvas and acquire an autonomy that is entirely free from the existing conceptual framework.

### **Epilogue**

What we could confirm from this exhibition is that Cho Youngdong's lifelong task has been to search for the essence of the structure that constitutes the whole, to explore the essence of pure formativeness in order to find the origin, the original thing on the very foundation, the source. In an article in Space magazine, Cho put importance on the flow of consciousness, saying, "Every artist has their own thoughts and plots expressed in certain tendencies that last throughout their life, and even if they are modified multiple times by different conditions, there is still a vein like a stream of water that flows through the whole." In order to find his own form, Cho said that he yearned for the righteous stem of mind(心莖11)) underlying at the bottom of his heart, quoting the expression hoesahuso (繪事後素), which means 'The painting comes after the groundwork,' and that he kept recovering and reconfirming this stem from his lifelong work of painting<sup>12</sup>). In this way, Cho Youngdong's artistic world represented the result of his constant reflection and inner investigation rather than changes according to external factors.

As a Chungbuk artist who has tirelessly tried to approach the source and essence of human life through pure artistic practice and noble spirit without conforming to the fame and wealth of the times, Cho Youngdong's artistic achievements deserve to be reevaluated now. Moreover, his unwavering ardor and efforts for creation will not only serve as an excellent example for future generations but also as a great nourish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Chungbuk art scene.

<sup>11)</sup> Cho Youngdong did not clarify the Chinese characters for the used word simgyeong, so it is hard to understand the exact meaning of this term with multiple homonyms. Still, I assumed that the artist was referring to a root, profound path, or stem in the heart with this word. Therefore, I, the author of this article, allowed myself to use the Chinese character gyeong (莖)(which means a stem. It can also b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reader's perspective.

<sup>12) &</sup>quot;Empty Thought (空-想) by Cho Youngdong," in Space, No. 229, August 1986, p. 78.

### 전시평론

### 시대를 초월한 본질 탐구의 '창조적 관찰자'

예술나눔 공익재단 아이프칠드런 이사장, 미술사 박사 김유섭 조영동(1933~2022)은 매우 폭넓은 조형 어법을 풍미한 '한국 추상회화 제2세대의 대표적인 작가'로 손꼽힌다. 표현 기법적으로 보면 유화 · 판화 · 조각 등 다양한 미술 장르를 넘나들었다. 특히 종이에 먹이나수채 · 파스텔 · 크레파스 · 연필 · 볼펜 등 재료에 구애받지 않은 드로잉작품들도 다수 남겼다. 그의 작품들은 특유의 '촉각적인 물성'이 돋보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빠른 필치의 남다른 손놀림은 순간적인 감각이 '극적으로 포착된 시각적 유희'를 완성해 냈다. 그래서 조영동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생동감과 역동성의 리듬감을 발산한다. 그 섬세한 감각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일제 식민지와 광복, 6.25 동란과 경제적 역동기, 군사 독재와 민주화 운동, 올림픽과 월드컵, K-한류와 코비드…. 이러한 파란만장한 역사적 시류를 관통한 게 조영동의 삶이었다. 조영동의 고향은 충청북도오지의 한 두메산골 '생극'이란 마을이다. 어린 시절 마을의 전체 인구가고작 20여 명이었고, 대부분 같은 성씨를 가진 작은 집성촌이었다. 그래도 워낙 총명했던 덕에 부모님은 의대 진학을 기대했지만, 모든 가족의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하며 운명이 갈렸다. 자연과 일상의 사물을 유의 깊게 관찰할 수밖에 없었던 유년기의 성장 배경은 예술가적 감수성이 형성되는데 적잖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여기에온갖 시대적 아픔을 극복했던 지난한 여정이 자양분 되어 희대의 예술가이자 철학가, 교육자로 인도했다.

조영동의 작품세계는 개괄적으로 미국 휴스턴 대학교 객원교수 시기인 70년대의 '점선' 시리즈, 공주교육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시기인 80~90년대는 '공상' 시리즈, 2000년도 전후엔 '대지의 율동'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 '천지창조→에케호모' 등의 종교적 색채가 강했던 대표적 특성으로 정리할 만하다.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작품 전체를 관통한 키워드는 '균형과 대칭, 혼돈과 질서, 부조화 속의 조화' 등 상생의 조화로움을 추구했던 작가적 신념이었다. 이는 조영동을 한평생 시공간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과 철학, 절대적 인간의 유토피아 사유를 추상적 화면에 담고자 천착한 작가로 기억하게 한다.

물론 20대 시절인 1950년대 후반에도 다양한 선과 격자 형태를 활용하거나 기하학적인 조형 언어로 진지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조영동의 작품을 단순히 조형적 담론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한정적인 이해에

그칠 가능성이 크겠다. 중년으로 갈수록 기존 서양 중심의 모더니즘적인 형식논리를 극복하고, 본인의 삶에 직접 연계된 자연적 철학관에 기반한 새로운 미학적 담론과 절대적 가치를 좇았다고 보는 게 낫겠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조영동의 시기별 조형 세계는 크게 세 구간으로 구분된다. 우선 초기는 1960년대부터 휴스턴대학교 시즌을 지나 1980년대 중후반까지로 본다. 초반기 작품은 자연과 일상적인 주제를 통해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이 돋보인다. 조형적 기본 요소인 점ㆍ선ㆍ면, 색감과 형태의 조화로운 흐름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작품으론 <유동〉, <연결〉, <점(點)> 시리즈가 주요하다. 화면의 특성은 원색적인 물감의 음악적 하모니로 연출된 우연성과 생동감 정도를 들 수 있겠다. 세밀하고 잔잔한 파동의 파편들이 화면의 상하 혹은 좌우 대칭으로 마주하며 유기적 균형감을 자아내는 장면들이 눈길을 끈다.

반면 중기는 미국에서 귀국해 미술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1980년 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후반까지이다. 이 시기는 인간 내면의 심리에 대한 탐구를 심화시킨 명상 테마의 <공-상> 시리즈와 칼로 긁어낸 선들로 물성과 공간적 해석에 주력한 '무심'의 작품들이 특징이다. 이는 인간 내면에 대한 탐구를 강렬한 색상과 복잡한 형태를 사용하고, 개인적 경험을 감정에 기반해 더욱 대담한 색상을 통해 추상적인 시각화 단계를 구현한 것이 가미된다. 요동치는 감정들이 퍼즐의 조각처럼 흩어졌다가도 무질서의 질서 속에 또다시 안정을 되찾는다.

마지막 후기는 60대 중후반에 접어든 1990년대 후반 이후이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사유가 더욱 깊어진다. 단순한 절제미와 상징성은 삶과 죽음 그리고 존재의 철학적 탐구로 이어진다. 더욱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은 자연스럽게 인간과 신의 조우로 이끌고, 작품 역시종교적 주제로 옮아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 토양-생성>, <토양-인성> 등의 시리즈가 해당할 것이다. 미술평론가 김영호는 조영동의 60대 이후 추상적 경향의 작품세계를 '서구 모더니즘의 형식논리에 기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점과 선 그리고 색이라는 순수 조형 요소 안에서 표현적인 세계를 발견하기도 하고 절대적인 공간개념과 물성의 본질적 세계를 추구하기도 하면서 모험을 지속해 왔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조영동은 말년으로 갈수록 종교적 주제에 심취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작품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인간의 존재와 신앙, 삶의 의미를 예술적 영감으로 일체화하고자 집중했다고 보겠다. 실제로 그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잘 알려져 있다. 천주교 입교는 6.25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겪으며 비롯됐다고 한다. 당시 심리적 방황은 사제가 된 한 친구로 인해 세례를 받으면서 안정을 찾게 된다. 이 친구의 초상화는 절두산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에 기증되어 있다.

하지만 1995년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가 창립되었을 때 부회장직을 수행했을 정도였음에도, '종교적 경계를 넘어선 종교관'이 함축된 작품들을 더 많이 남겼다. 아내는 성서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근간을 이해하는 경건한 신학적 복음주의 개신교 교파인 감리교의 독실한 신자였다. 또한 불교의 여러 스님과도 교류하며, 스케치 여행을 절로 자주 다니기도 했다. 그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는 예술가적 기질과 삶의 태도를 실천한 셈이다.

"아버지(조영동)는 늘 '작품에 대한 완성도는 80퍼센트 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했다. 창작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마무리해야 할지 또 시도해야 하는지 '완전을 향해 가는 것'일 뿐이란 지적이다. 베토벤 역시 작곡하면서 1000번을 고치고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는 일화에 비교할만하겠다. 인생도 그렇다. 사랑도 그럴 것이다. 어쩌면 예술, 인생, 사랑은 모두 같이 '미완성이 완성인 수수께끼'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미완성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영동의 유가족 조윤신의 회상이다. 딸만 넷을 둔 조영동은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삶에 대한 자세와 지혜를 전해주려고 애썼다. 특히 여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사회적 활동을 크게 응원했다. 그런 의미에서 '80% 완성의 미학'을 강조한 그의 말이 아주 인상적이다. 평생 진정한 완성미를 갈구해야만 할 예술가의 숙명적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고, '완성 혹은 완전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말이다. 물론 인간적 삶의고뇌를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가령 '고통받는 예수의 모습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알려진 '에체 호모' 주제의 조영동 작품 역시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다. 그의 종교적 신념이 깊게 묻어난 '인간의 복잡한 내재적 심리'를

대변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영동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의 작품도 다수 남겼다. 인간의 삶 속에서 상존하는 온갖 슬픔과 고통, 갈등과 고뇌에 노출된 다난한 감정들의 이면을 비춘 작품이다. 인간의 감성적 메타포까지 포용한 추상적 표현의 완성미를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영동은 서양화의 추상적 요소와 한국의 전통적 미감을 독창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남겼다. 서양의 잭슨 폴록은 행위와 물리적 움직임에 중점을 뒀다면, 조영동은 내면의 감정을 중시해 인간의고뇌를 아름다움의 조형적 균형미로 승화시켰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인간 내면과의 조우,인간과 종교(신)의 만남 등 본질적 원성에 대한 탐구를 색채와 형태의 추상적 조화로움으로 풀어내고자 천착했다. 조영동은 생전에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것은 '버릴 수 없는 희망'이지만,종교는 이 잔인한 희망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삶에 내재한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화면에 담아내려 했던 조영동에게 있어 종교는 예술이 아니었을까.

### **Critical Essay**

### "Creative Observer" in Search of Timeless Essence

Kim Yoon-sub
Chairman of the AiF Children Art Sharing
Non-Profit Foundation,
PhD in Art History

Cho Youngdong (1933-2022) is considered a "representative artist of the second generation of Korean abstract painting" with an outstanding command of a wide range of formative rhetorics. In terms of expressive techniques, he encompassed various art genres, such as oil painting, printmaking, and sculpture. However, he also created a large number of drawings using many different materials such as ink, watercolor, pastel, crayon, pencil, and ballpoint pen on paper. His works are characterized by a distinctive "tactile quality." His quick, dexterous hand strokes created a "visual play dramatically capturing" momentary sensations. As a result, a sense of vitality and dynamic rhythm emanated from each of Cho's works. Where did this delicate sensibility originate from?

Cho Youngdong's life has been a series of turbulent historical events, including Japanese colonization and liberation, the Korean War and economic boom, military dictatorships and democratization movements, the Olympics and World Cup, the K-culture wave, and the COVID-19 pandemic. His hometown is Saenggeuk, a village in a remote mountain valley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During his childhood, the village had a total population of only 20 residents, most of whom had the same family name. He was such a brilliant kid that his parents expected him to go to medical school, but against all his family's opposition, his fate led him to the College of Fine A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childhood background, where he had no other choice but to observe nature and everyday objects meticulously, probably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sprouting of his artistic sensibility. On top of it, his lifetime journey of overcoming the hardships of the times led him to become a rare artist, philosopher, and educator.

If I overview Cho Youngdong's oeuvre, it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he period of the "Dotted Line" series in the 1970s, when he was a visit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Houston in the United States, the period of "Empty Thought" series in the 1980s and 1990s, when he was a professor at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nd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Korea, and the period of strong religious features, starting with "Soil Movements" around 2000, followed since by "Genesis", "Ecce homo" series. Regardless of the period, the keyword that runs through the entirety of his work is the artist's belief in pursuing harmony of coexistence, such as "balance and symmetry, chaos and order, and harmony in disharmony." It is the reason we remember Cho Youngdong as an artist who spent his entire life trying to convey true love, philosophy, and the idea of absolute human utopia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through his abstract paintings.

It is true that, even in the late 1950s, when he was in his twenties, Cho dealt with his formative language in earnest, utilizing varied kinds of lines and grid forms or geometric formative rhetorics. However, if we were to define Cho Youngdong's work simply based on a formative discourse, it would probably limit our understanding of his art world. I would rather say that as he grew into middle age, he transcended the existing Western-centered modernist formal logic and pursued a new aesthetic discourse and absolute values based on a natural philosophy that was more directly connected to his life.

The formative world of Cho Youngdong is publicly known as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is the early period, from the 1960s through his days at the University of Houston to the mid-to-late 1980s. The early works stood out by lyrical and emotional expressions through nature and everyday subjects. He focused on the basic formative elements, such as dot, line and plane, as well as the harmonious flow of colors and shapes. The major works of this era include the series "Flow," "Connection," and "Dot." Their images are marked with contingency and liveliness created by the musical harmony of primary colors. The scenes attract our attention by creating a sense of organic balance, with fragments of delicate, gentle waves facing each other in symmetry, either vertically or horizontally.

Then, the middle period is from the late 1980s to the mid-to-late 1990s, when he returned from the United States and served as a professor at art colleges in Korea. This stage was represented by the meditation-themed "Empty Thought" series, which deepened his exploration of the inner psychology of human beings, and the "Absent-minded" series, which focused on materiality and spatial interpretation with knife-scratched lines. He applied intense colors and intricate shapes to explore the inner side of a human being and complemented them by embodying abstract visualization through even bolder colors inspired by his personal experience and emotion. The fluctuating emotions are scattered like pieces of a puzzle but then calmly regain their place in the order of the disorder.

The last period refers to the era after the late 1990s when he entered his mid-to-late 60s. The artist's contemp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nature attained a more profound level. Simplicity, austerity, and symbolism lead to philosophical explorations of life, death, and existence. Moreover, the question of life and death naturally guided him

to the encounter between man and God, and his works also evolved toward religious themes. This is the case with series such as "Soil-Genesis" and "Soil-Humanity," which first appeared in the late 1990s. Art critic Kim Youngho once assumed that Cho's works in abstract tendency from the 1960s onward were "based on the formal logic of Western modernism." However, he then commented that the artist "continued his adventures by discovering the realm of expression within the pure formative elements of dot, line, and color, as well as pursuing the essential world of absolute spatial concepts and materiality."

Toward the end of his life, Cho Youngdong became more devotedly immersed in religious themes, which aroused significant influences on his work. He concentrated on unifying human existence, faith, and the meaning of life through his artistic inspiration. He was indeed widely known for being a devout Catholic. His conversion to Catholicism came from experiencing the horrors of the Korean War. After psychological wandering of the time, he found peace when he was baptized, encouraged by a friend who became a priest. The portrait of this friend is displayed at the Jeoldusan Korean Catholic Martyrs' Museum, donated by the artist.

However, even though he was an active Catholic, as he served as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Catholic Artists Association when it was founded in 1995, he also left numerous works that implied a "view of religion beyond religious boundaries." His wife was a devout Methodist Christian, a pious evangelical Protestant denomination that understands Christianity's basis rooted in the Bible. In addition, he also interacted with many Buddhist monks, and the Buddhist temples were one of his favorite destinations for sketching trips. We can say that he practiced an artistic temperament and attitude toward life that was not bound by any specific delimi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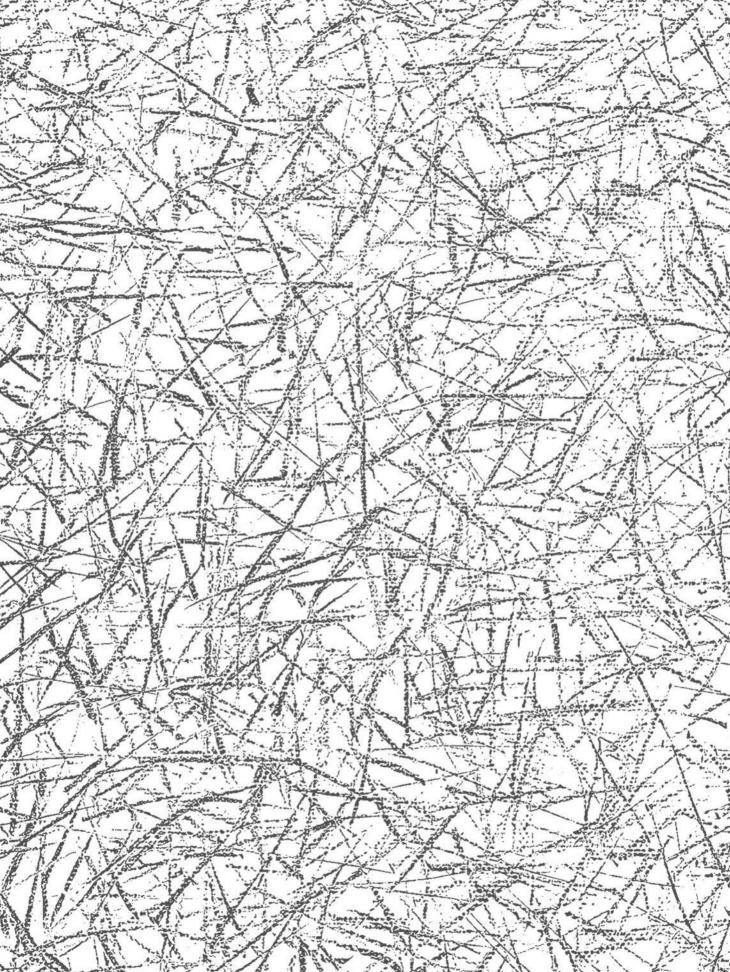
"My father [Cho Youngdong] always said that a work should be 80 percent complete, which means that artist creators are only those who are 'going toward perfection' when they think about where to finish or start again. It reminds me of Beethoven's story, in which he had rewritten his compositions 1,000 times before he eventually returned to the beginning. So is life. So may be love. Maybe art, life, and love are all 'mysteries that are complete when they are incomplete,' and we should do our best for each incomplete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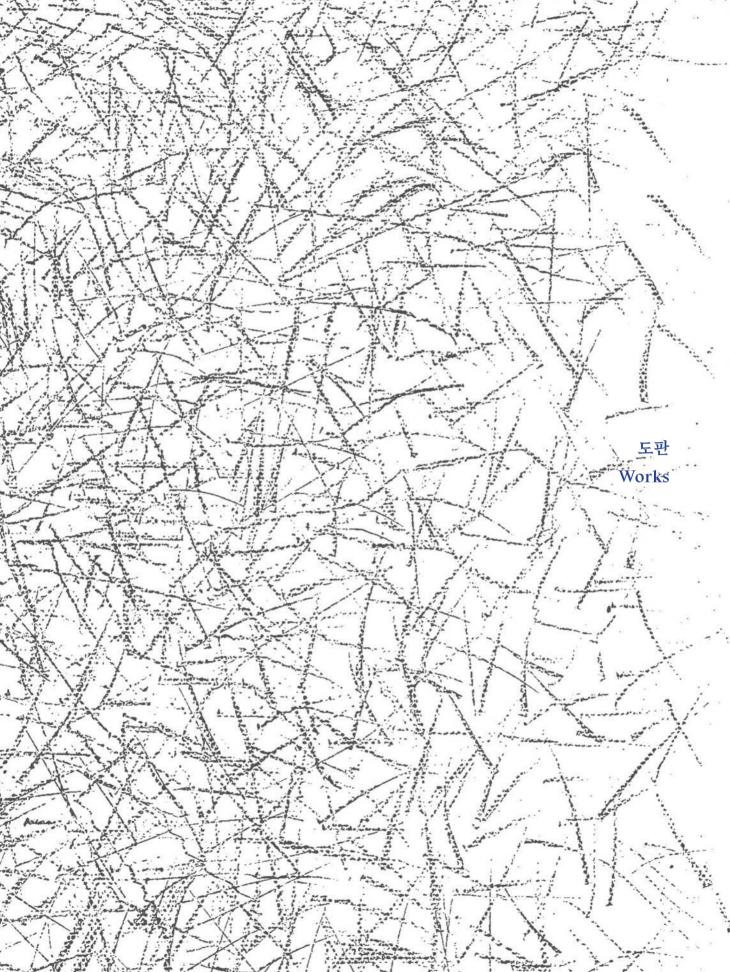
So is the recollection of Cho Yoonshin, the artist's daughter. Cho Youngdong, as a father of four daughters, endeavored to share his

attitude and wisdom on life with his children from an early age, especially encouraging their self-esteem as women and social activities. In that sense, his emphasis on the "aesthetics of 80% completion" impresses me even more. He overcame the fateful limits of an artist who is destined to long for true perfection all his life and proposed a "new solution to the anxiety of completion or perfection." It is for sure that he may have started by overcoming the anguish of human life.

For example, Cho Youngdong's works on the theme of "Ecce homo," referring to "paintings or sculptures depicting the suffering figure of Jesus Christ," can be grasped as an extension of such thought. These works are estimated to represent the "complex inner psychology of human beings" by deeply incorporating his religious beliefs. In fact, Cho Youngdong left a number of works even titled "Ecce homo," which reflect the hidden aspects of tormented emotions resulting from all kinds of sadness, pain, conflict, and anguish that exist in human life. It seems that he pursued the culmination of abstract expression by embracing even metaphors of human emotions.

Cho Youngdong's legacy manifests the reinterpretation of the abstract elements of Western painting and traditional Korean aesthetics in an original style. While Jackson Pollock in the West put forward the action and physical movement, Cho emphasized inner emotions, sublimating human anguish into a formative balance of beauty. Investigating intrinsic essence through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the encounter with humans' inner selves, and the encounter between humans and religion (God), he devoted himself to depicting all of them in abstract harmony of colors and shapes. Cho Youngdong stressed during his lifetime, "The cruelest thing in the world is 'hope that we cannot abandon,' but religion is the only answer to this cruel hope." In the end, I may say that, for Cho Youngdong, who wanted to capture the mysterious beauty inherent in life on his canvas, religion is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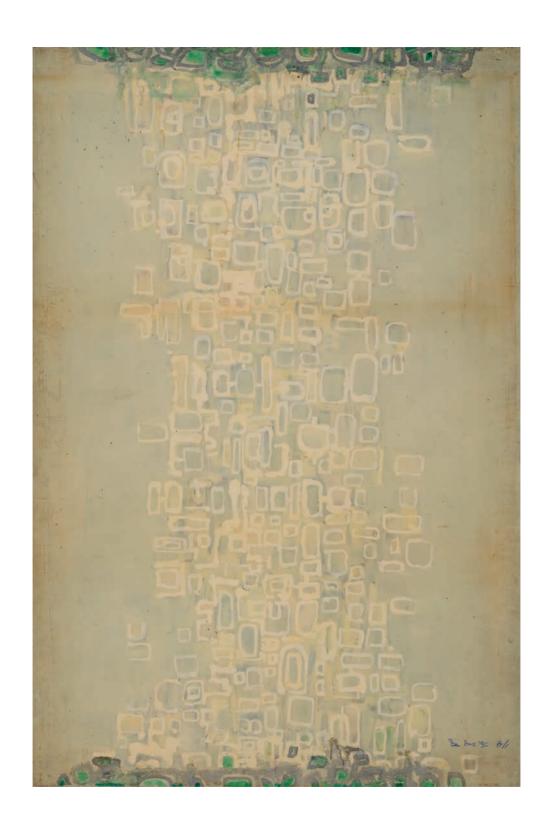


무제 Untitled 1972,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15×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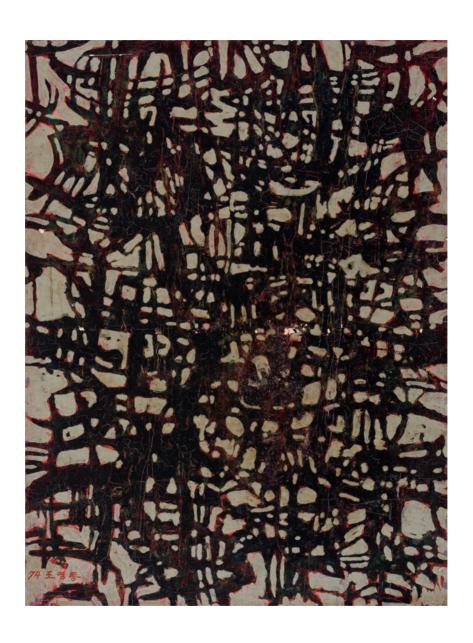


무제 Untitled 1972,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40×111cm

1974,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35×90cm



1974,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82×60cm





무제 Untitled 1975,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30×9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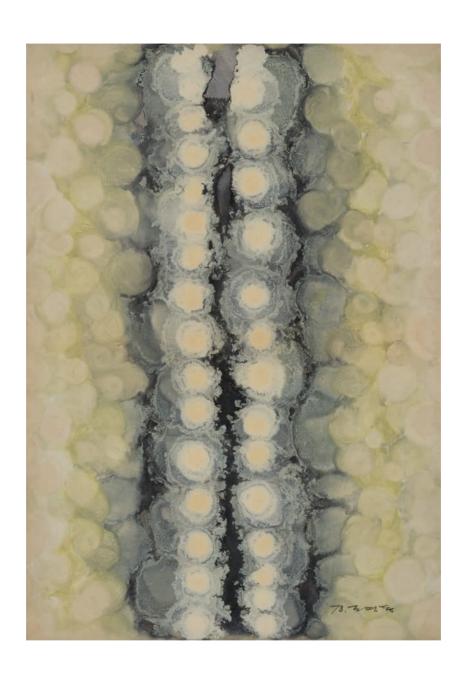
무제 Untitled 1975,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82×50cm

1976,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52×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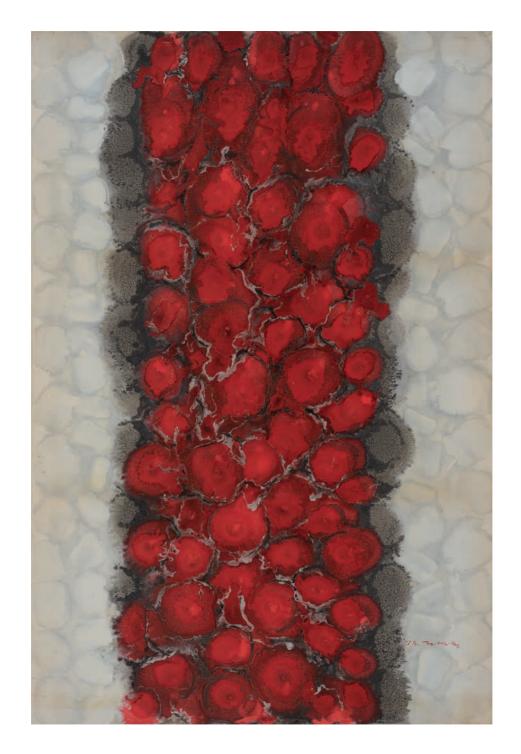




무제 Untitled 1978,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30×97cm



무제 Untitled 1978,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02×7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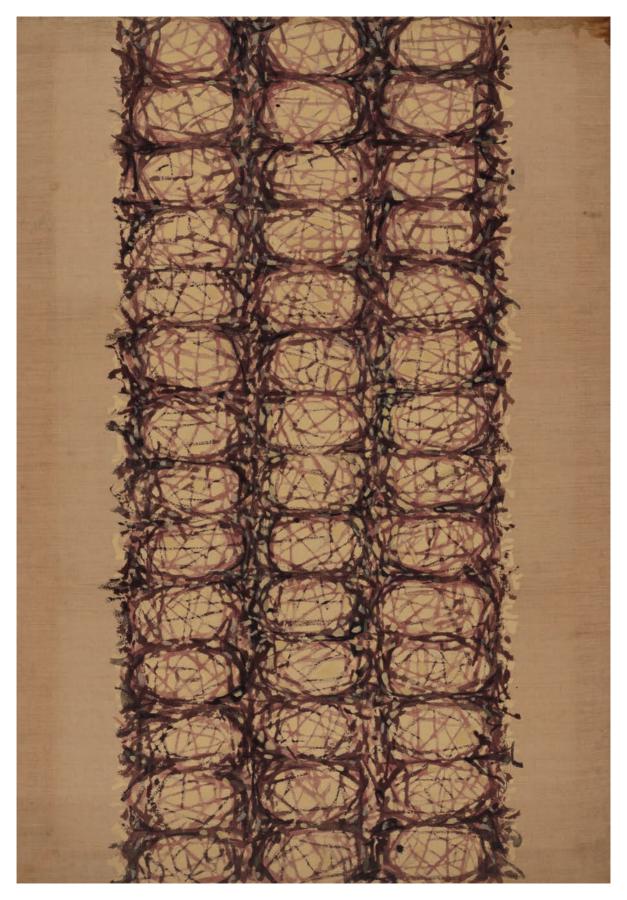
무제 Untitled 1978,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46×97cm



무제 Untitled 1978,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46×1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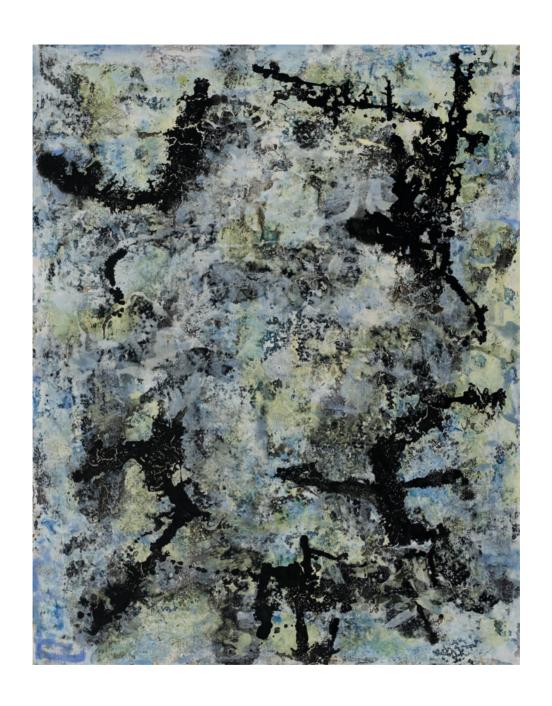


무제 Untitled 1979,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92×6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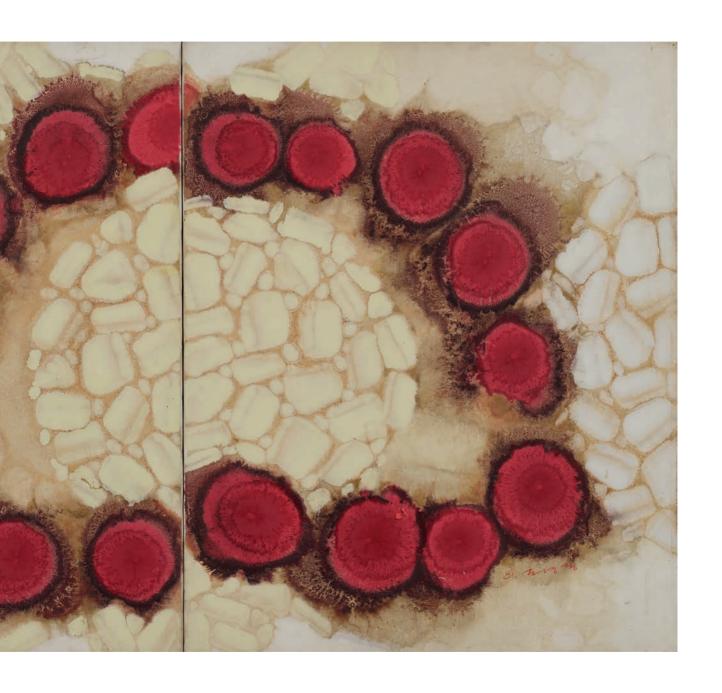
토양-인성 Soil-Humanity 1980, Oil on canvas more or less, 140×1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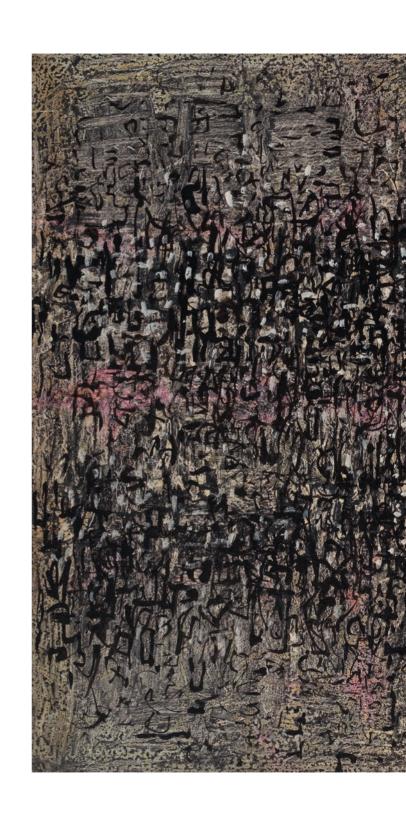
토양-인성 Soil-Humanity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40×1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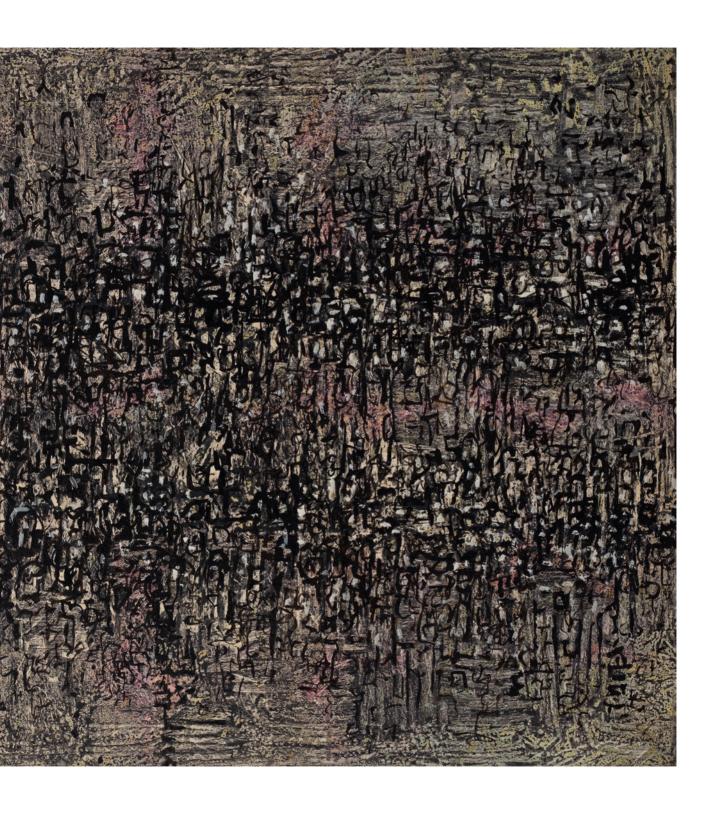
무제 Untitled 1981,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00×80cm(2ea)







무제 Untitled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90×130cm





공-상(空-想) Emptiness-Thought 1986, Oil on canvas, 72×53cm



공-상(空-想) Emptiness-Thought 1986,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00×72cm



공-상(空-想) Emptiness-Thought 1986,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65×50cm



공-상(空-想) Emptiness-Thought 1986,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30×97cm

공-상(空-想) Emptiness-Thought 1986,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30×9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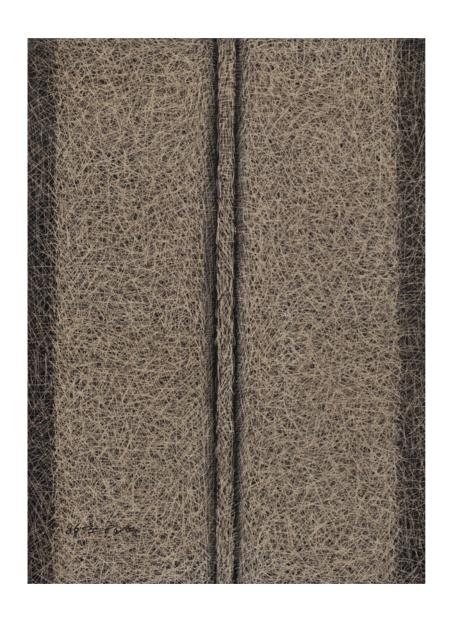


공-상(空-想) Emptiness-Thought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65×50cm



공-상(空-想) Emptiness-Thought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17×87cm





공-상(空-想) Emptiness-Thought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75×53cm



공-상(空-想) Emptiness-Thought 1986,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63×50cm





공-상(空-想) Emptiness-Thought 1986,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00×72cm



공-상(空-想) Emptiness-Thought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75×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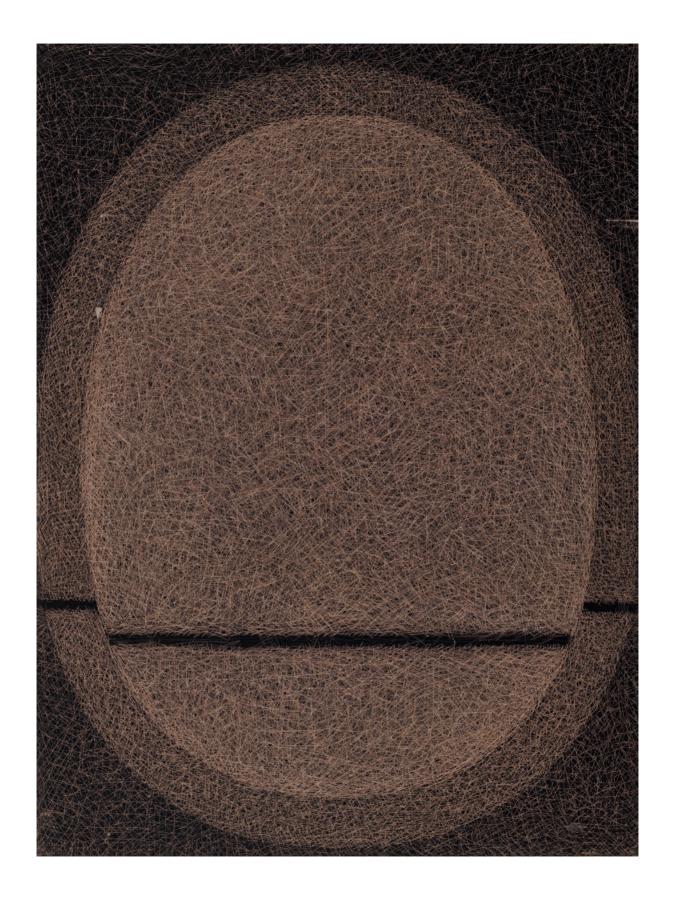




공-상(空-想) Emptiness-Thought 1986,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30×97cm



공-상(空-想) Emptiness-Thought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00×80cm





무제 Untitled 1991,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60×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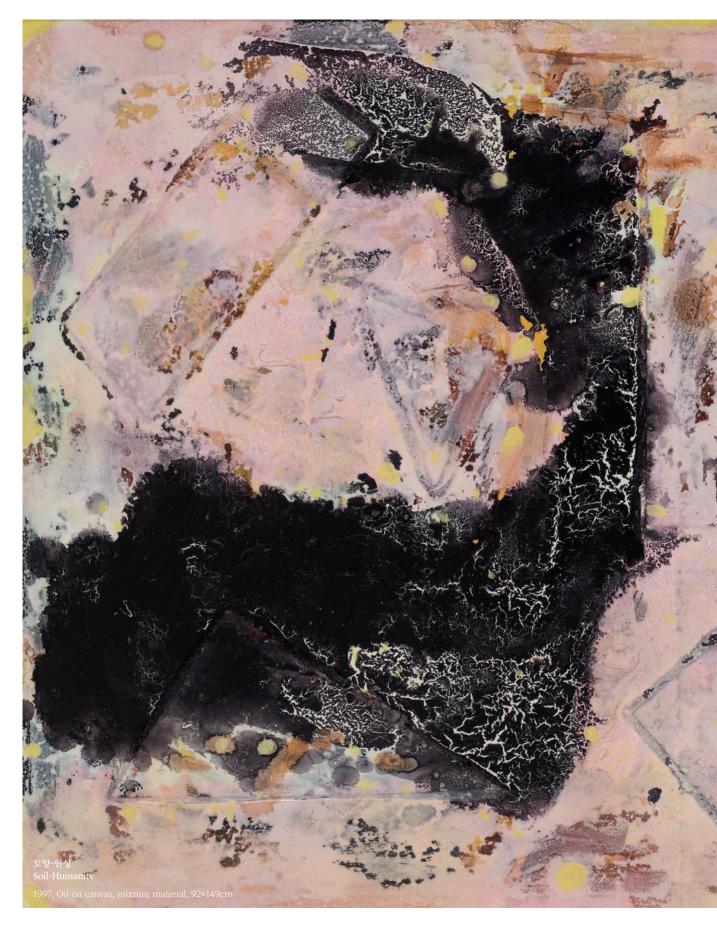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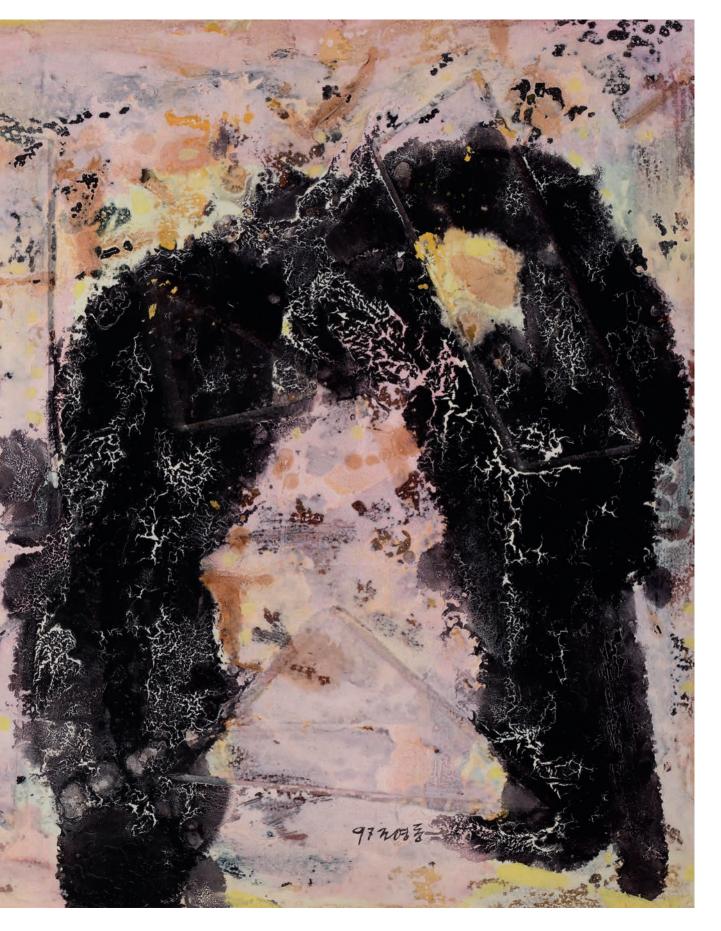
그리스도의 수난 crucifixion 1994,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30×46cm(2ea)



토양-인성 Soil-Humanity 1993,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70×15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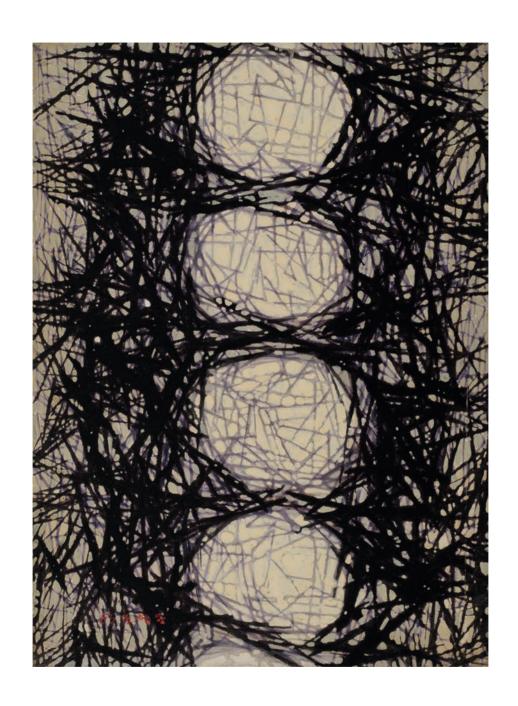




토양-인성 Soil-Humanity 1993,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93×118cm



토양-인성 Soil-Humanity 1997,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60×100cm



무제 Untitled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82×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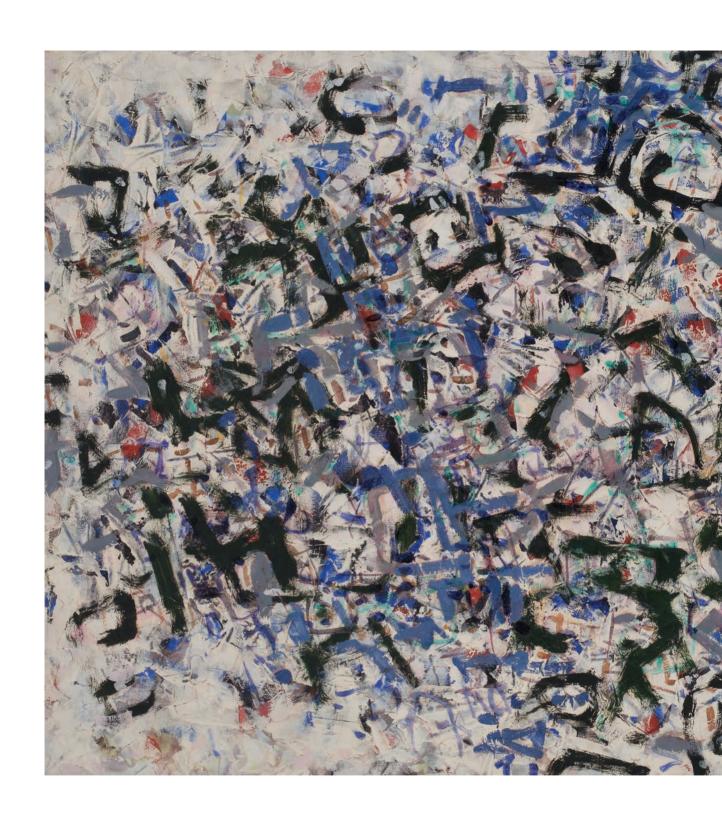


무제 Untitled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30×40cm



토양-인성 Soil-Humanity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80×40cm(4ea)





토양-인성 Soil-Humanity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70×133cm





토양-인성 Soil-Humanity 2000,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60×60cm



토양-인성 Soil-Humanity 2002,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60×60c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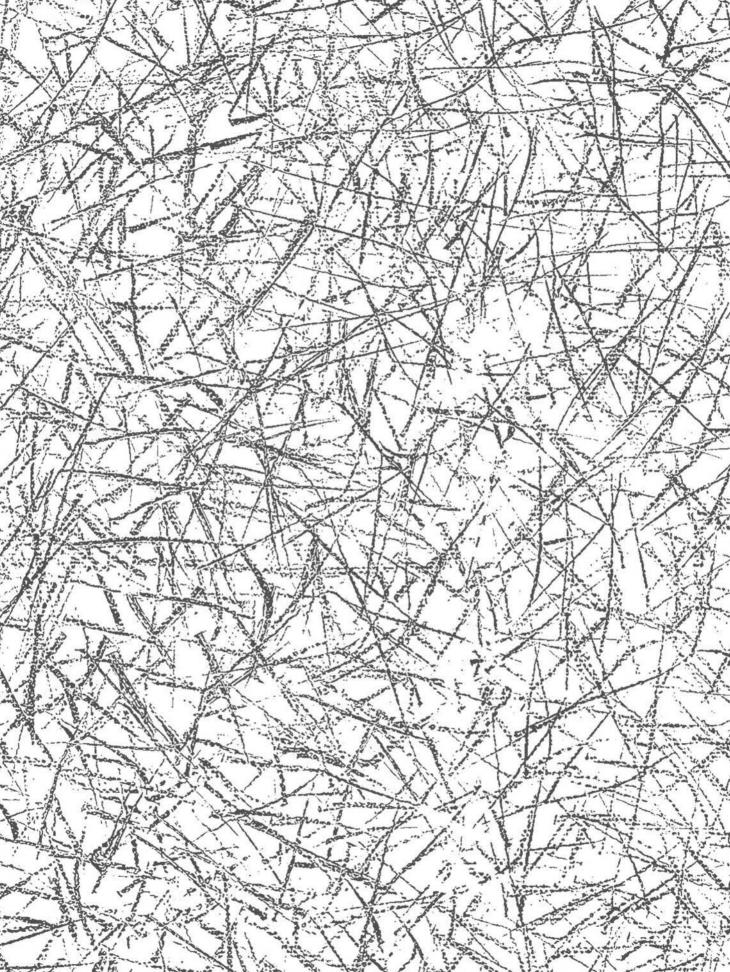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70×7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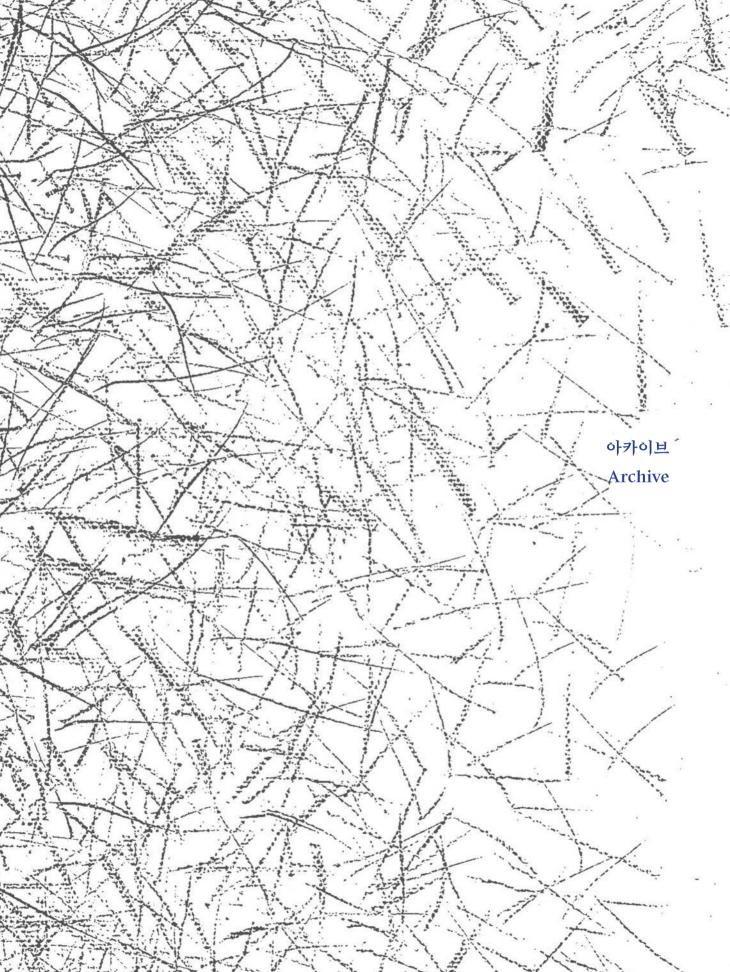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00×100cm









용스 번 대학교 ( 백사스 수 용스 먼시 글 엔기 소스) 1973. 4. 12. 공수 그육 대학 조 성 등

후 보 성 등

진해하는 호 교수 제

수스 턴 대학교 이술 자는 1979 — 1974 년 학기의 등 양 이 실 초성 교수도소 교수 15을 성식으로 조심하는 바입니다. 는 배당고 미술자는 우차, 소요, 수 채화, 서에등의 본 아에서 당신의 혹는 한 채실을 붉음으로 하는 바, 여러가지 않답으로 은 대학교 미술과 학생들을 쉽게로 교수 이고 시도 하는 등 이상과 같은 본 아에서 미술과 교수 전등 간의 비명 활동 에도 성곡 참석에 즐 것을 조 교수 제 기대하는 바입니다. 는 대학교 학과 온 있도 에 따라 소 교수 제 기대하는 바입니다. 는 대학교 학과 온 있도 이 따라 소 교수 제 기대하는 바입니다. 는 대학교 학과 온 성을 당하는 교수들의 등 과시도 모성에 총하게 될 것이나다. 두 관계 성당과목은 미술136 — 15일 소요실실, 미술 291/272 확 371/372 유화 실습, 미술 136 시에실실, 미술 436/43 수 제화 실습동 입니다. 이상과 같은 학과을 에 해당하는 시간은 성의 계월로 가 이십 후 인을 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시간보 운 영의 서부 기위적 사선에 건당하게 못함을 후 강스 설계 생각하나다만 보고 구는 제 대한 기계는 기의 등 기의 등 기의 사학 기의 등 일은 소 교수 제서는 본 미술 각의 입안 교수를 보다는 학자운 영의 부당이 많이 많은 것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바닥건에 본인은 소 교수 께서 도미함 시에 되도록 이민당신의 작품을 많이 채미하셔서 때 당당시간에 들어오는 반장을 입게 중 본만 교수 기관을 "세시해 도이를 이면당시를 이게 중 본만 교수 기관을 "세시해 무성으면 감사하겠음니다.

용니다.
금 번에 초 교수 제 초청상을 밝혔게 되었음은 논인가 본
대학 미술 과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대학 미술 과
교수 전체 학생들은 초 교수 팀의 본 대학 출강이 위하를 모
도 이지 후 위하고, 파하서 당신의 강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대통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서희들은 휴스턴 대학교 템이
스 에서 초 교수 팀기의 상봉을 하수고 데 하면서 금 번 본 대 한의 소청장을 수 만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비만니다.

안녕히 게십시오 유스턴 배워고 미승자 수임 교수 본 인은 공축 인으로서 본 호칭성의 실행적인 미터 구인터 박사기 후스 번 대학교 미술과 수입교수인 시설과 교회 세 인의 사실과 부합될 뿐 이나의 1972년 4월 12일 논인 앞의 서 서명하였음을 확인하는 비입니다. 공 중 인 백자스 수 하이스 군 ( ) 의의 시설을 확인함 흥스턴 취재 한국 영사관이는 호칭장의 내용을 확인 하였음 1973 년 4 월 10 일

서명

이를 안 희 희 신위 영사

year sineopety,

/// / / / / /

Peter W. Guenther
Assoc. Prof. of Art History
Chairman, Art Department





227 - 367







SUBSCRIBE TO THE BONANZA SEA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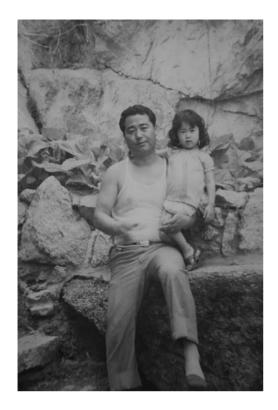


















조영동과 조윤신











휴스턴 게이꼬 갤러리, 1973



대흥동성동 내 기념촬영, 대흥동성당 내 14처 앞 기념촬영, 1963년 (이미지 대전시립미술관 제공) 왼쪽부터 조영동, 이지휘, 이종수, 오기선신부, 최종태, 이남규, 남용록





10회 삿포로 개인전, 1993











김수환 추기경님과 1980년대



유관순 열사 초상







스승 장욱진과 조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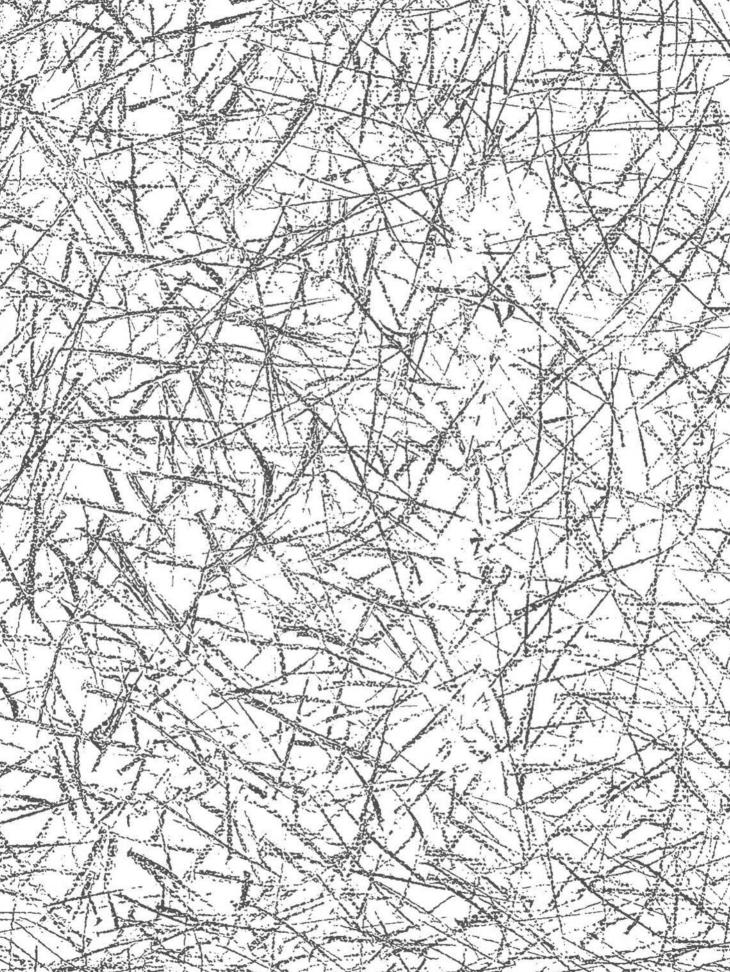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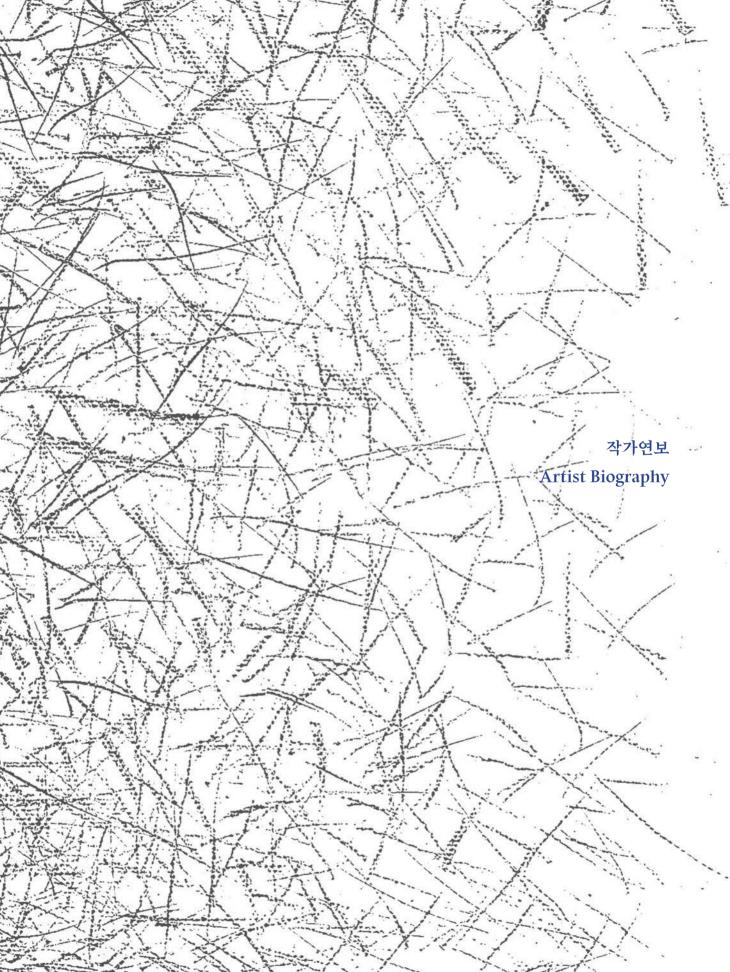












### 조영동 (1933~2022)

개인전

단체전

1933 충북 음성 출생 1957 서울대 미대 졸업 1965-1967 목포교육대 교수 1967-1984 공주교육대 교수

1973-1974 미국 휴스톤대학교 미술대학교 객원교수 1983 동국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석사 졸업 1984-1998 성신여대 미술대학교 교수 1995-2002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부회장 1997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 1998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2015 제19회 가톨릭미술상 특별상 2022 선종 1965 개인전, 예총화랑, 목포 1967 개인전, 예총화랑, 목포 1973 개인전, 명동화랑, 서울 1979 개인전, 덕수미술관, 서울 1986 개인전, 문예진흥원미술회관, 서울 1987 개인전, 샘화랑, 서울 1992 개인전, 조선화랑, 서울 1993 개인전, 대동갤러리, 삿포로, 일본 1997 개인전, 갤러리상, 서울 1998 개인전, 성신여자대학교 미술관, 서울 2003 개인전(고희전), 대전시청, 대전 1968 5인전<이남규, 이민희, 이지휘, 조영동, 최종태>, 시민회관, 서울 1972 4인전<김진태, 이남규, 이지휘, 조영동>, 명동화랑, 서울 1972 제1회 한 일 작품교류전, 국립중앙공보관 화랑, 서울 1972-1976 창작미술협회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5-1977 서울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8 제14회 아시아 현대미술전, 도쿄도미술관, 도쿄, 일본 1980 한국-아랍미술교류전, 한국아랍친선협회(구아랍문화회관), 서울 1982 제5회 인도트리엔날레, 뉴델리, 인도 1982-1992 현대미술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과천 1983 한국현대미술전, 비스콘티아나홀, 밀라노, 이탈리아 1984 현대종교미술국제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85 피에르가르뎅초대전, 에스파스 피에르가르뎅, 파리, 프랑스 툴루즈 한국현대미술, 툴루즈미술관, 툴루즈, 프랑스 1986 국제기독교미술전(SIAC), 성 스테파노 로톤도 성당, 로마, 이탈리아 창작미술협회 30주년 초대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87 서울현대회화 5인전, 대동갤러리, 삿포로, 일본 1988 제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세계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89 제4회 아세아국제미술전람회,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1990 한국미술 오늘의 상황, 예술의전당, 서울
- 1990-1992 대한민국 종교인 미술큰잔치, 예술의전당, 서울 현대미술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91 개관 20주년 기념전, 조선화랑, 서울
- 1992 예술의전당 전관 개관기념 현대미술전, 예술의전당, 서울 서울-삿포로 아트쇼, 삿포로시립미술관, 삿포로, 일본
- 1992-1997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1993 가톨릭미술협회 전국교수연합전, 공평아트센터, 서울 현대작가초대전, 모란미술관, 남양주
- 1994 정도600년 서울국제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95 서울-삿포로특별기획전, 콘티넨탈갤러리, 삿포로, 일본
- 1996 개관전, 은성갤러리, 서울 서울대학교와 현대미술, 서울대학교 박물관, 서울
- 1998 개관전,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1999 제26회 서울가톨릭미술가회 99 희년맞이 특별전, 가나아트센터, 서울
- 2001 한밭미술의 여정,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2003 21세기 국제창작예술가협회 초대전, 세종화랑, 서울
- 2009 2009 현대미술 특별초대전, 청주문화관, 청주
- 2011 대흥동 예술가들: 1950~1960년대,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2015 한국추상화가 15인의 어제와 오늘, 안상철미술관, 양주
- 2024 Ecce Homo 에체 호모'전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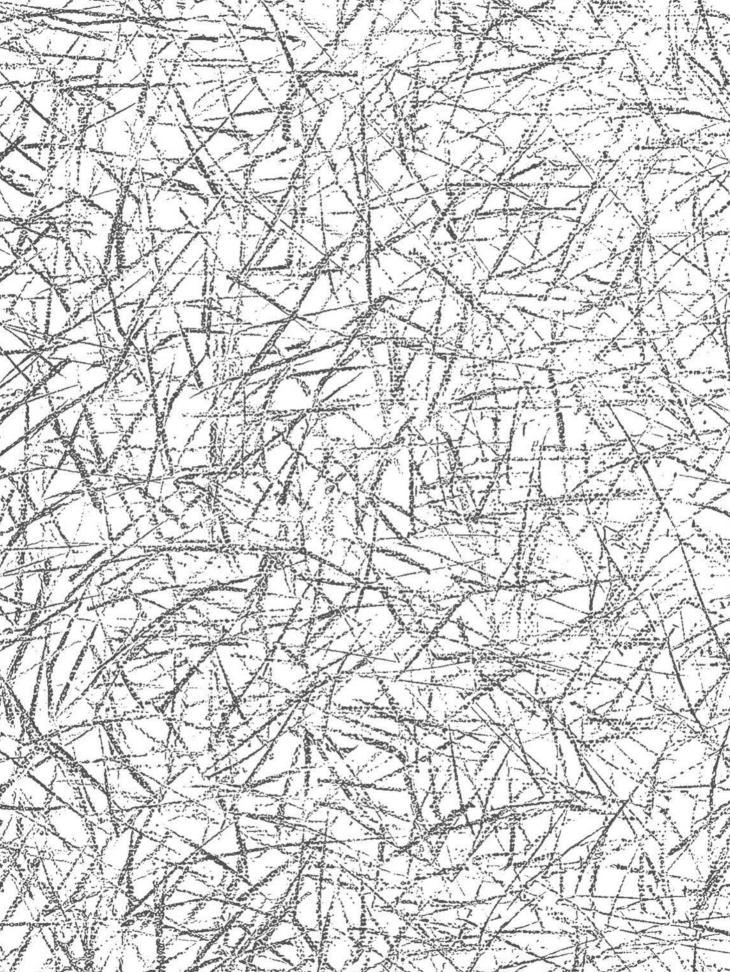
## **Cho Youngdong** (193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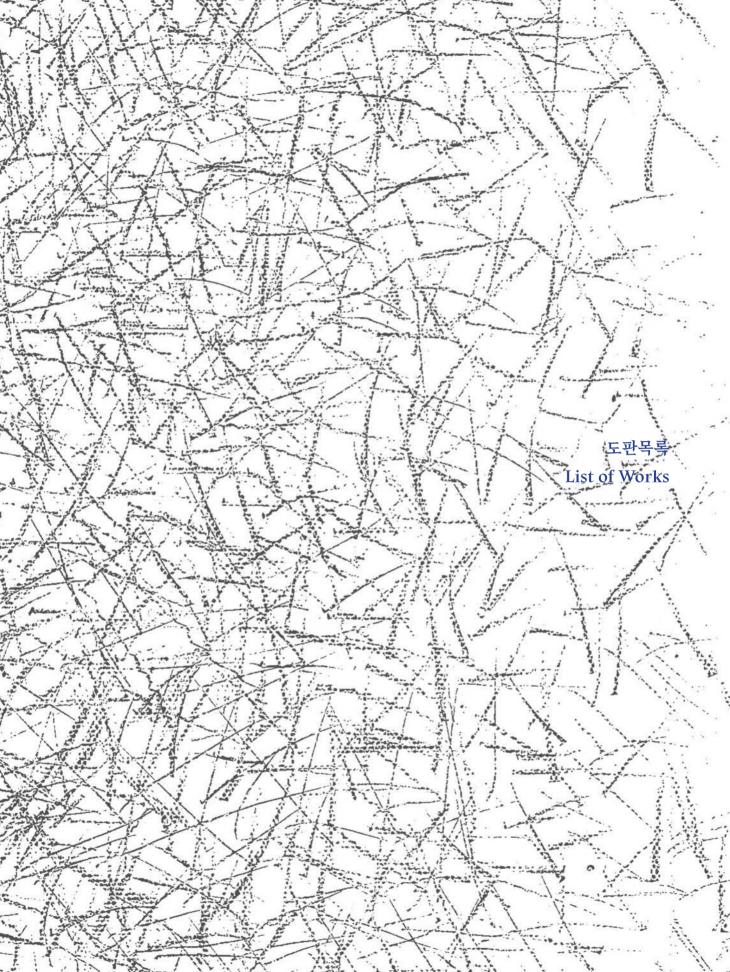
Solo Exhibitions

Group Exhibitions

1933	Born in Eumseong, Chungcheongbuk-do province					
1957	7 Graduated from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65	5-1967 Served as a professor at Mokpo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967	7-1984 Served as a professor at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973	3-1974 Served as a visiting professor at the College of Fine Arts, University of Houston, USA					
1983 Obtained Mmaster's degree in Art Education fro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1984	4-1998 Served as a professor at College of Fine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1995	5–2002 Served as Vice President of the Catholic Artists Association of Korea					
1997	7 Executive Committee Member of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1998	1998 Received Dongbaek Medal, Order of Civil Merit					
2015	5 Received Special Award at the 19th Catholic Art Award					
202	2 Passed away					
1965	5 Solo Exhibition, FACO Gallery, Mokpo					
	7 Solo Exhibition, FACO Gallery, Mokpo					
1973	Solo Exhibition, Myeongdong Gallery, Seoul					
1979	Solo Exhibition, Deoksu Art Museum, Seoul					
1986	Solo Exhibition, Art Center of Korea Art and Culture Foundation, Seoul					
1987	7 Solo Exhibition, Saeng Gallery, Seoul					
1992	2 Solo Exhibition, Chosun Gallery, Seoul					
1993	3 Solo Exhibition, Daedong Gallery, Sapporo, Japan					
1997	7 Solo Exhibition, Gallery Sang, Seoul					
	Solo Exhibi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Museum, Seoul					
200	3 Solo Exhibition (Commemoration Exhibition of the 70th Birthday), Daejeon City Hall, Daejeon					
1968	Five Artists Exhibition: Lee Namgyu, Lee Minhee, Lee Jihui, Cho Youngdong,					
	Choi Jongtae, Citizens' Hall, Seoul					
1972	Pour Artists Exhibition Kim Jintae, Lee Namgyu, Lee Jihui, Cho Youngdong,					
	Myeongdong Gallery, Seoul					
1972	2 1st Korea-Japan Art Exchange Exhibition, Korea Information Center Gallery, Seoul					
1972	2-1976 Changjak Fine Arts Association Exhibi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5-1977 Seoul Contemporary Art Festival,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3 14th Asian Contemporary Art Exhibition, Tokyo Metropolitan Art Museum, Tokyo, Japan					
1980	O Korea-Arab Art Exchange Exhibition, Korea Arab Friendship Society					
100	(Formerly Arab Cultural Center), Seoul					
	2 5th India Triennale, New Delhi, India					
1982	2-1992 Contemporary Art Invitational Exhibition,					
1001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 Gwacheon					
	Korean Contemporary Art Exhibition, Viscontea Hall, Milan, Italy  A Later and Each likition of Contemporary Policieus Art					
1984	4 International Exhibition of Contemporary Religious Art,					
100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5 Pierre Cardin Invitational Exhibition, Espace Pierre Cardin, Paris, France					
1700	Toulouse Korean Contemporary Art Exhibition,					
	Toulouse Museum of Fine Arts, Toulouse, France					
	Tourouse fraseum of time fires, Tourouse, Trance					

- 1986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an Artists (SIAC) Exhibition,
   Basilica of St. Stephen Rotondo, Rome, Italy
   30th Anniversary Invitational Exhibition of Changjak Art Center of
   Korea Art and Culture Foundation, Seoul
   The Past and Present of Korean Contemporary Ar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 1987 Seoul Contemporary Painting Five Artists Exhibition, Daedong Gallery, Sapporo, Japan
- 1988 7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World Contemporary Art Festival,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 1989 4th Asia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 1990 Current Situation of Korean Art, Seoul Arts Center, Seoul
- 1990-1992 Korean Religious Art Festival, Seoul Arts Center, Seoul Contemporary Art Invitational Exhibi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 1991 20th Anniversary Exhibition, Chosun Gallery, Seoul
- 1992 Contemporary Art Exhibition in commemoration of the inauguration of Seoul Arts Center, Seoul Arts Center, Seoul Seoul-Sapporo Art Show, Sapporo City Museum of Art, Sapporo, Japan
- 1992-1997 Seoul Art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 Catholic Artists Association National Professors' Association Exhibition,
   Gongpyeong Art Center, Seoul
   Contemporary Artists Invitational Exhibition, Moran Art Museum,
   Namyangju
- 1994 Seoul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Festival, in commemoration of the 6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Seoul,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 1995 Seoul-Sapporo Special Exhibition, Continental Gallery, Sapporo, Japan
- 1996 Inaugural Exhibition, Eunseong Galler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ontemporary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Seoul
- 1998 Inaugural Exhibition,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 1999 26th Seoul Catholic Artists Association 99 Jubilee Special Exhibition, Gana Art Center, Seoul
- 2001 Journey of Hanbat Art,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 2003 21st Century International Creative Artists Association Invitational Exhibition, Sejong Gallery, Seoul
- 2009 2009 Contemporary Art Special Invitational Exhibition, Cheongju Cultural Center, Cheongju
- 2011 Daeheung-dong Artists: 1950s 1960s,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 2015 Past and Present of 15 Korean Abstract Painters, Ahn Sangchul Art Museum, Yangju
- 2024 Exhibition Ecce Homo, Korean Catholic Martyrs Museum, Seoul





28 무제 41 무제 54 공-상(空-想) Untitled Untitled Emptiness-Thought 1972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15×80cm 146×100cm 65×50cm 29 무제 42 무제 55 공-상(空-想) Untitled Untitled Emptiness-Thought 1986, 1972 1979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40×111cm 92×66cm 130×97cm 31 무제 43 무제 57 공-상(空-想) Untitled Untitled Emptiness-Thought 1974,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986,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30×90cm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35×90cm 130×97cm 토양-인성 33 무제 Soil-Humanity 58 공-상(空-想) Untitled 1980 Emptiness-Thought 1974, Oil on canvas more or less,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40×110cm 65×50cm 82×60cm 45 토양-인성 공-상(空-想) 무제 34 Soil-Humanity Emptiness-Thought Untitled 1974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17×87cm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40×110cm 130×90cm 61 공-상(空-想) 46 무제 Emptiness-Thought 35 무제 Untitled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Untitled 162×130cm 1981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00×80cm(2ea) 82×50cm 62 공-상(空-想) Emptiness-Thought 49 무제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37 무제 Untitled 75×53cm Untitled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22×63cm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63 공-상(空-想) 52×40cm Emptiness-Thought 무제 50 Untitled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무제 38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63×50cm Untitled 90×130cm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65 공-상(空-想) 공-상(空-想) Emptiness-Thought 130×97cm 52 Emptiness-Thought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986, 130×97cm 무제 39 Oil on canvas, Untitled 72×53cm 공-상(空-想)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Emptiness-Thought 102×70cm 53 공-상(空-想) 1986 Emptiness-Thought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00×72cm 무제 40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Untitled 100×72cm 1978, 공-상(空-想)

Emptiness-Thought

75×60cm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46×97cm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69 공-상(空-想)

70

Emptiness-Thought

1986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30×97cm

공-상(空-想)

Emptiness-Thought

1986,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30×97cm

71 공-상(空-想)

Emptiness-Thought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00×80cm

73 공-상(空-想)

Emptiness-Thought

1990,

Oil on canvas more or less,

130×98cm

74 무제

Untitled 1991,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60×60cm

75 그리스도의 수난

crucifixion

1994,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30×46cm(2ea)

76 토양-인성

Soil-Humanity

1993,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70×151cm

78 토양-인성

Soil-Humanity

1997,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92×149cm

80 토양-인성

Soil-Humanity

1993,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93×118cm

81 토양-인성

Soil-Humanity

1997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60×100cm

82 무제

Untitled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82×60cm

83 무제

Untitled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30×40cm

84 토양-인성

Soil-Humanity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80×40cm(4ea)

86 토양-인성

Soil-Humanity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70×133cm

88 토양-인성 Soil-Humanity

2000,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60×60cm

89 토양-인성

Soil-Humanity 2002,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60×60cm

91 토양-인성

Soil-Humanity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70×70cm

93 토양-인성

Soil-Humanity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100×100cm

95 자화상

Self portrait

Oil on canvas, mixture material,

90×60cm

2024 충북문화관 기획전

Cho Youngdong ব্রপ্তাহ ক্রমের



ISBN 979-11-984603-3-2

#### © (재)충북문화재단

본 도록에 실린 글과 도판은 (재)충북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충북문화재단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The texts and images in this catalog cannot be used without the consent of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To use the images and texts, please obtain the consent of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ISBN 979-11-984603-3-2



# Road to the Essence





